“젊은 패기로 플레이오프 진출 도전”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2024-2025 H리그 출사표

내달 2일 경남 상대 개막전 맏언니 김금순·서아루 건재 영입생 이민지·연지현 기대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18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연고지인 광주 지역 미디어 데이를 개최한 뒤 신한 SOL Pay 2024-2025 핸드볼 H리그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시즌 H리그 7위와 전국체육대회 8강에 그치며 자존심을 구긴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신한 SOL Pay 2024-2025 핸드볼 H리그’에서 플레이오프 진출로 명예 회복을 노린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은 18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연고지인 광주 지역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새 시즌 각오를 다졌다. 이날 미디어 데이에는 오세일 감독과 민지혜 트레이너를 비롯한 선수단 전원이 참석했다.

오 감독은 “지난해 줄부상으로 힘든 시즌을 보냈다. 비시즌에 고참들이 은퇴를 하고 이적도 발생하면서 여자부 여덟 구단 중 가장 젊은 팀으로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며 “올해는 열다섯 명 모두 부상 없이 개막에 돌입할 수 있다. 다시 도약하고 성장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출사표를 밝혔다.

지난 2010년 창단한 광주도시공사는 만년 하위권을 전전하는 팀이었으나 2019년 오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다크호스로 탈바꿈했다. 2020-2021시즌부터 2021-2022시즌, 2022-2023시즌까지 3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루며 상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을 앞두고 에이스 강경민이 자유 계약(FA) 자격을 취득하며 SK슈가글라이더즈로 이적하며 전력에 누수가 생겼다. 또 송혜수와 원선필, 이아현, 정현희 등이 줄부상에 시달린 끝에 6승 1무 14패(승점 13)에 그치며 7위에 머물렀고 전국체육대회 역시 8강에서 고배를 마시며 우울한 한 시즌을 보냈다.

오 감독은 “선수단 구성이 다른 팀에 비해 이르게 완료됐고 소집도 빠르게 진행했다”며 “전지훈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팀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다. 선수층도 훨씬 좋아졌고 모두 건강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종료 후 SK슈가글라이더즈에 골키퍼 박조은을 보내고 이민지를 받는 맞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한솔과 한승미는 은퇴를 택했고 방민서와 원선필은 부산시설공단에 새 둥지를 틀었으나 신인 드래프트에서 연지현(한국체대)과 김지선(일신여고), 조연서(인천비즈니스고)를 지명하며 전력 보강을 꾀했다.

오 감독은 “지난 시즌에 공격력에 문제가 있었다. 송혜수와 이아현이 공격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민지는 골대를 탄탄히 지켜줄 수 있는 자원이다. 연지현도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재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9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전지훈련을 통해 손발을 맞출 계획이다. SK슈가글라이더즈와 중국 장수, 대구체고, 한국체대 등과 연습경기로 실전 경험을 쌓고 다음 달 2일 충북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리는 경남개발공사와 개막전을 준비한다.

오 감독은 “전지훈련을 통해 완전체로 처음 실전을 소화한다. 일단 부딪혀 봐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며 “광주도시공사를 맡아서 개막전을 계속 승리했는데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졌다. 같은 상대를 만나게 됐는데 반드시 설욕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감독은 새 시즌 중심축을 맡을 주장에 국가대표 서아루를 발탁했다. 베테랑들이 은퇴와 이적을 선택하면서 1996년생의 서아루는 광주도시공사에서 두 번째 고참이 됐다.

서아루는 “가장 어린 팀이지만 새로운 선수, 건강한 선수들과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하겠다”며 “무거운 분위기보다 친구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주장이 되겠다. 공수에서 모범을 보이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고 베스트 7도 수상해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안세영 “후회 없어… 경기 즐기고 싶은 생각뿐”

배드민턴협회 겨냥 발언 후폭풍

‘셔틀콕 여제’ 안세영(22·삼성생명·사진)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한 직후 쏟아냈던 작심 발언과 관련해 “후회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지난 17일 공식 유튜브 채널 ‘BWF TV’에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4 직후 올 시즌을 결산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는 안세영의 인터뷰가 담겼다.

안세영은 “그때 당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말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지적했던 부분들을 개선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결승에서 지든 이기든 같은 말을 했을 것 같다”고 입을 뗐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8월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고 실제로 배임 및 횡령 등 의혹이 나타나며 김택규 회장의 해임 요구로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답변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조금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에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KIA, 2024시즌 샐러리캡 98% 소진

연봉 상위 40명 합계 약 112억

올해 KBO 리그 통합 우승을 이룬 KIA 타이거즈가 연봉 총액의 상한선인 샐러리캡을 사실상 꽉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4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18일 발표했다.

올해 경쟁균형세 상한액은 2021~2022년 구단별 상위 40명의 연봉 합산해 연평균치로 나눈 금액의 120%인 114억2638만원이었다.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는 제외되며 연봉과 옵션 실지급액을 반영하고 FA 계약금의 경우 연평균치로 나눠 계산한다.

금액 집계 결과 KIA는 112억4900만원을 소진해 1억7738만원을 남겼다. 소진율은 98.02%로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9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KIA는 올해 통합 우승에 따라 전반적인 연봉 인상이 예상되지만 내년 20%가 상향되는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다. 한규빈 기자

전남축구협회의 U14대표팀이 일본 가고시마 전지훈련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축구협회 U11·U14 대표팀, 일본 가고시마서 전지훈련

12~19일 선수 36명 참여 담금질

전남축구협회의 U11·U14 대표팀이 경기력 강화를 위해 일본 가고시마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축구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전남 U11, U14 대표팀을 파견해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지훈련에는 전남지역 초등학교 4·5학년 위주의 U11팀 16명, 중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U14팀 20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훈련과 교류경기 외에도 가고시마 U12, U15 AG국제컵에도 참가하며 2025시즌을 대비한 담금질을 하고 있다.

김성민(여수미평초 감독) 지도자와 정언종(해남동초 감독) 지도자가 이끄는 전남 U11 대표팀은 지난 13일 일본 히가시이티키팀에 4-0, 메이와팀에 3-1로 각각 승리를 거둔데 이어 14일 이시키다이 FC에 5-0, 스요유 FC에 6-1, 메이와 FC에 6-0으로 이기며 5연승의 가도를 달렸다.

15일에는 아수카 FC를 7-0, 히가시쿠시라 FC을 5-0으로 완파하며 7연승을 달리다 쿠와에 FC에 1-6으로 패했으나, 바씨 SC와 니시타니야마를 연달아 격파했다.

이로써 전남 U11 대표팀은 일본 U12 교류전을 9승1패로 마무리지었다.

이영수(순천FC 감독) 지도자와 박완선(광양스포츠클럽 감독) 지도자가 진두지휘한 U14 대표팀은 조세이고교 U16팀에 1-3, 이쿠에이칸중학교에 2-3으로 연패했지만 같은 팀과 한번 더 맞대결을 펼쳐 각각 1-3 패, 3-1 승리를 거둔 뒤 니치난가쿠인 중학교와 2차례의 경기에서 1승1패를 기록하며 2승4패로 교류전을 마쳤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은 “그동안 전남도내 우수 유소년 축구선수를 선발해 유럽으로 동계전지훈련을 보내오던 것을 이번에는 선수들에게 ‘아시아의 축구 강호’인 일본 축구를 몸소 체험해보도록 하고자 전지훈련지를 변경했다”며 “우리 지역 우수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일본 현지팀과의 친선 교류경기 및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전남을 넘어 한국 축구 국가대표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전남축구협회는 매년 동계와 하계에 축구선진국인 일본과 유럽(이탈리아, 독일 등) 등에 우수선수를 뽑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항상 한발 앞서나가는 전남축구협회의 운영이 전남체육회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2025년도에는 선수들의 글로벌 체험 등을 위한 해외교류 등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